

청계천에 얽힌 민속놀이 현황과 현대적 재현 방안

- 청계천 민속놀이 재현의 의의
- 청계천 민속놀이 현황
- 청계천 민속놀이의 현대적 재현 방안
- 청계천 민속놀이 이용 문화인프라 구축 및 도시마케팅 활용

청계천 민속놀이 재현의 의의

- 서울의 역사, 문화, 장소성 복원으로서 청계천 복원
 - 청계천 일대는 서울 사람들의 삶과 정서가 담긴 놀이문화가 일상적으로 펼쳐지던 여가공간이자 놀이공간이었음.
 - 청계천 복원은 삶의 공간으로서 청계천 지역이 지닌 장소성을 복원하는 것이며, 청계천에 얽힌 민속놀이의 재현은 청계천 문화의 복원이자 생활사의 복원으로서 의미를 지님.
- 현대 서울인의 일상과 호응하는 청계천 민속놀이
 - 청계천 민속놀이의 재현은 단순한 과거 놀이의 모사적 복원이 아니라, 현대 서울인의 삶과 취향, 정서에 조응하는 현대화된 민속축제의 개발임.
 - 청계천 민속놀이가 오늘날 서울 사람들의 일상과 호응하면서 삶 속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청계천 민속축제개발만이 아니라, 이를 활용한 전통문화인프라 구축 및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통문화활성화 방안과 연계되어야 함.

청계천 민속놀이 현황

- 서울 도심의 생활문화로서 청계천 민속놀이
 - 청계천 민속놀이는 청계천의 영향을 받는 생활공간에서 행해지던 놀이임. 따라서 청계천 민속놀이는 공간적으로 청계천과 접해있는 곳과 서울 도심부를 포함하고, 시간적으로 1960년대 청계천 복개 이전의 생활문화와 풍속이 내재된 서울사람들의 민속놀이를 지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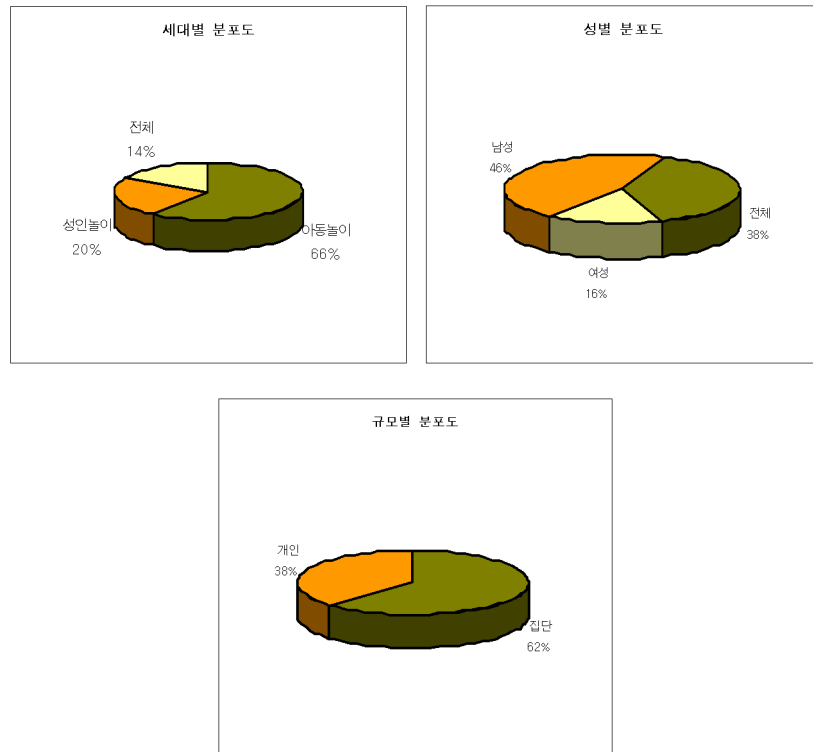
- 조선시대 서울 도심에는 양반, 중인, 상인, 천민 등 다양한 신분계층들이 살았기 때문에 놀이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함.

○ 청계천에 얽힌 민속놀이 종류

- 고문서, 고지도, 사진집, 여행기, 서울시사 및 구사, 각종 보고서 등의 문헌자료와 청계천의 현지주민, 서울 및 청계천 토박이, 전문예술인 및 무형문화재 전승자 등과의 인터뷰 등 문헌 및 현지조사를 통해, 총 **74개**의 청계천에 얽힌 민속놀이가 파악됨.
- 청계천 민속놀이를 놀이주체별(세대별, 성별, 규모별)로 살펴보면 <표 1>, (그림 1)에서 보듯이, **아동·남성·집단놀이**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농경사회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음.

<표 1> 세대별 청계천 민속놀이 현황

종류(개)		놀이명
아동 놀이 (49)	함께하는 아이놀이 (18)	꼬리잡기, 그림자놀이, 기차놀이, 눈(眼)싸움, 눈(雪)싸움, 두꺼비집짓기, 손뼉치기, 수건돌리기, 술래잡기(숨바꼭질), 줄넘기, 칠교놀이, 풀싸움, 풀피리불기, 허방다리, 화적, 고기잡이, 제웅치기, 물장구놀이
	여자 아이놀이(8)	각시놀이(풀각시놀이), 고무줄놀이, 공기놀이, 파리불기, 다리세기, 소꿉놀이, 오라잡기, 실뜨기
	남자 아이놀이(23)	깡통차기, 고누, 공차기, 구슬치기, 굴렁쇠놀이, 딱지치기, 땅뽕기(땅재먹기), 둔치기, 진치기, 돌치기(비석치기), 말타기(말뚝박기), 쌀매타기(얼음지치기), 종경도(승경도)놀이, 연날리기, 엿치기, 팔랑개비돌리기, 자치기, 장치기, 제기차기, 쥐불놀이, 팽이치기, 총싸움, 닭싸움
성인 놀이 (15)	여성놀이(4)	그네뛰기, 널뛰기, 야앵, 화전놀이
	남성놀이(11)	씨름, 택견, 활쏘기, 뱃놀이, 청유, 복놀이, 단풍놀이, 시회, 골패노름, 장기, 바둑
전체 놀이 (10)	대동놀이(6)	웃놀이, 줄다리기, 돌싸움, 연등놀이, 달맞이, 다리밟기
	놀이패놀이(4)	남사당놀이, 산대놀이, 나희, 선소리산타령



[그림 1] 놀이주체별 청계천 민속놀이 분포도

- 청계천 민속놀이를 시기별(월별, 절기별, 음력 기준)로 살펴보면, <표 2>, <표 3>에서 보듯이 세시풍속에 따라 1년 내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12월~2월에 이르는 겨울철에 특히 집중되어 있어, 농한기이자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통과의례기에 다양한 놀이가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정월대보름에 이루어진 놀이가 14개로 세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2> 월별 청계천 민속놀이 현황

월별(개)	놀이명
1월(14)	연날리기(보름전), 다리밟기(보름), 돌싸움(보름), 달맞이(보름), 널뛰기(정월초), 나희(설날-보름), 옷놀이(정초), 제웅치기(14일밤), 화적(14일, 보름), 종경도 놀이, 돈치기(보름), 선소리산타령(보름), 쥐불놀이(보름) 줄다리기(정초-대보름)
2월(1)	널뛰기
3월(8)	버들피리불기, 각시놀음, 풀싸움, 화전(화류)놀이, 진치기(봄, 가을), 유산노름, 야맹, 활쏘기
4월(3)	다리밟기(초파일), 연등놀이(초파일), 물장구놀이(초파일)
5월(3)	연날리기(단오), 그네뛰기(단오), 씨름(단오)
6월(6)	그네뛰기(15일), 고기잡이, 파리불기, 청유, 천렵, 복놀이(천렵; 삼복)
7월(2)	씨름(보름), 뱃놀이
8월(1)	씨름(보름)
9월(4)	시회(중양절), 단풍놀이(중양절), 진치기(봄, 가을), 활쏘기
10월(1)	연날리기
11월(1)	연날리기
12월(11)	연날리기, 널뛰기, 탈춤(산대놀이패), 옷놀이(선달그믐), 제기차기(겨울), 썰매타기(겨울), 팽이치기(겨울), 사당패공연(겨울), 팔랑개비돌리기(겨울~늦봄), 줄넘기(겨울~이른봄), 눈[雪]싸움
기타(34)	고누(수시), 숨바꼭질(수시), 택견, 골패노름, 자치기, 오라잡기, 공기놀이, 굴렁쇠굴리기, 소꿉놀이, 땅뺨기, 허방다리, 꼬리잡기, 그림자놀이, 기차놀이, 눈[眼]싸움, 두꺼비집짓기, 손뼉치기, 수건돌리기, 칠교놀이, 고무줄놀이, 다리세기, 실뜨기, 깡통차기, 공차기, 구슬치기, 딱지치기, 돌치기(비석치기), 말타기, 엿치기, 장치기, 총싸움, 닭싸움, 장기, 바둑

<표 3> 절기별 청계천 민속놀이 현황

절기(월)	대표세시	대표민속놀이
봄(3~5)	삼짇날/초파일/단오	화전, 연등놀이, 다리밟기, 씨름, 그네타기, 연날리기
여름(6~9)	유두/백중/삼복	청유, 천렵, 고기잡기, 씨름, 뱃놀이
가을(10~11)	추석/중양절	씨름, 시회, 단풍놀이, 연날리기
겨울(12~2)	정월대보름	다리밟기, 돌싸움, 연등놀이, 달맞이, 나희, 제웅치기, 돈치기, 연날리기, 돈치기, 선소리산타령, 줄다리기, 쥐불놀이, 화적, 달맞이 등

○ 청계천 민속놀이의 현대적 재현을 위한 11개의 주요 민속놀이

- 총 74개의 청계천 민속놀이 중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표 4>와 같이 총 11개의 주요 민속놀이를 선정함.
- 놀이공간의 배경이 청계천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놀이
- 고문헌 및 기록을 통해 놀이의 방법과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놀이

- 세시풍속과 관련이 있어 쉽게 시민들의 정서에 부합할 수 있는 놀이
- 인터뷰 및 면접을 통해 청계천 변에서 성행한 것으로 확인된 민속놀이
- 주요 민속놀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청계천 민속놀이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음.
 - 광고, 수표교, 종가 등 서울의 중심부에서 민속놀이가 성행했음. 특히 종가(보신각)는 사람들의 집결지 역할을 하면서, 다리밟기, 연등놀이 등의 핵심공간으로 기능함.
 - 정월대보름에 관련된 민속놀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청계천과 가장 연관성이 깊은 대표적 민속놀이는 다리밟기였음. 다리밟기는 길게는 3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연등놀이와 함께 가장 성행한 민속놀이였음.

<표 4> 청계천 주요 민속놀이 현황

주요 민속놀이	출처	시기	장소	내용
연날리기	경도잡지 / 열양세시기 동국세시기 / 서울풍물지 조선의 향토오락	정월보름 (1~2일전)	수표교/청계천변	· 연놀이 · 액막이 연 · 연싸움 · 고고매 · 연날리기 시범
다리밟기	경도잡지 열양세시기 동국세시기 답교곡 만언사 / 조선상식 조선의 향토오락	정월보름	대광동교 소광동교 수표교	· 12개 다리밟기 · 부녀자액막이 · 보신각 종소리 · 남녀만남 · 난장(피리, 북, 통소, 술병, 노래와 춤) · 가마 · 말 · 지팡이 · 나막신
돌싸움 (석전)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열양세시기 / 동국세시기	정월보름	종로/비파정 만리현/우수현	· 몽둥이 · 물끼얇기 · 편싸움 · 곤봉휘두르기 · 돌던지기 · 겨울솜외투 · 소년싸움과 어른싸움
달맞이	경도잡지 / 청장관전서	정월보름	종가 / 광동교	· 햇불 들고 산 오르기 · 종가에서의 타종식 · 동방의 행락조
화전	시명군 속가집 / 동국세시기 경도잡지 / 열양세시기	봄 (3/3)	필운대 / 북둔 동대문 밖 세심대 남산 흥인문 밖	· 꽃놀이 · 화전먹기 · 시 읊기
연등놀이	동국세시기 / 성시전도 조선의 향토오락 / 천변풍경	4월초파일	종가/장안/잠두봉	· 등달기(자녀수) · 낙화회 · 다양한 모양의 등 · 영등(影燈)
웃놀이	경도잡지 / 동국세시기 / 천변풍경	정초	천변	· 지혜 겨루는 놀이 · 웃점
팽이치기	천변풍경	겨울	개천	· 팽이싸움 · 오래 돌리기
얼음지치기	천변풍경	겨울	개천	· 얼음판
그네뛰기	임귀동	단오	동묘	· 남자그네 · 여자그네 · 높이 뛰어 솥방울차기
결련택견	청계천의 역사와 문화		청계천변 아랫대 동대문 / 광희문 왕십리 / 훈련원	· 힘 겨루기 · 체력단련

○ 청계천 민속놀이의 현대적 재현을 위한 4개의 핵심 민속놀이

- 총 11개의 주요 민속놀이 중, <표 5>와 같은 기준, 즉 놀이가 지니는 핵심컨셉과 현대적 재현가능성을 기준으로 <표 6>과 같이 총 4개의 핵심 민속놀이(다리밟기, 연등놀이, 연날리기, 석전)를 선정함.

<표 5> 청계천 핵심 민속놀이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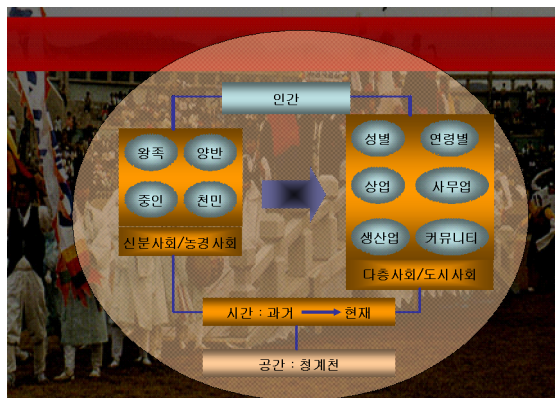
	놀이의 핵심컨셉	현대적 재현가능성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구성의 가능성 - 형식 및 내용 구성의 가능성 - 정서, 욕망의 재현 가능성 - 시공간구성의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계천과의 관련성(서울 도심부, 역사성) - 문헌기록의 증빙성 - 경험과 기억의 증빙성 - 재현 주체(놀이, 연행) 구성의 가능성

<표 6> 청계천 핵심 민속놀이 현황

놀이명	출처	시기	장소	주요 프로그램
연날리기	삼국사기 / 지봉유설 동국이상국집 경도잡지 / 열양세시기 동국세시기 서울풍물지 조선의 향토오락	정월보름 1-2일전	수표교 청계천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놀이 · 연싸움 · 연날리기 시범 · 액막이연 · 고고매
다리밟기 (답교놀이)	영어록 / 북경세화기 지봉유설 / 경도잡지 동국세시기 만언사 / 답교곡 조선의 향토오락 조선상식	정월보름	대광통교 소광통교 수표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신각 종소리 · 12개 다리밟기 · 난장(피리, 북, 통소, 술병, 노래와 춤) · 다리병 액막이 · 가마 · 말 · 지팡이 · 나막신 · 남녀간의 만남
돌싸움 (석전)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경도잡지 동국세시기 서울풍물지 등	정월보름	종로 비파정 만리현 우수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몽둥이 · 물 끼얹기 / 돌 던지기 · 곤봉 휘두르기 · 편싸움(소년싸움, 어른싸움) · 겨울 솜외투
연등놀이	고려사 / 경도잡지 천변풍경 / 성시전도 열양세시기 동국세시기 조선왕조실록 조선의 향토오락	4월 초파일	종가 서울장안 남산 북악산 개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 전시 · 등 달기(자녀 수) · 낙화회 · 영등(影燈) · 약기놀이 · 연등 만들기

청계천 민속놀이의 현대적 재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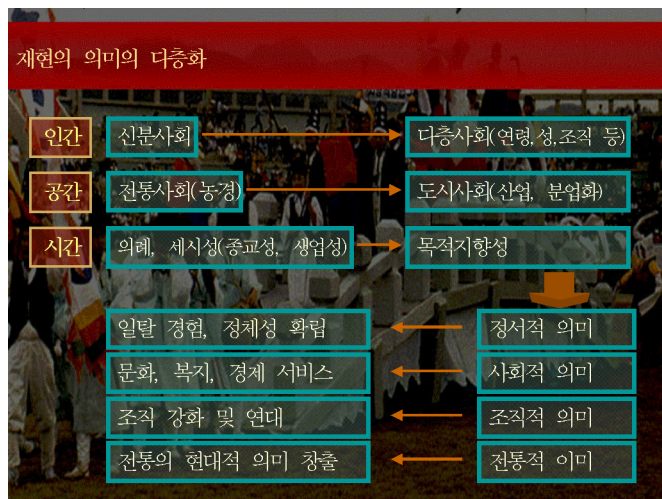
- 청계천 민속놀이 재현의 패러다임(1) : 「인간·시간·공간」의 맥락적 패러다임속에서 재현
 - 생활문화는 삶의 주체인 '인간',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 삶의 행위가 전개되는 '시간'의 결합에 의해 발생함. 과거 청계천 민속놀이는 그 당시의 '인간·시간·공간' 축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현대적으로 재현할 경우, 단순한 과거 놀이의 복원이 아니라, 현대적 함의를 담아 재구성된 「인간·시간·공간」 축으로 재현되어야 함([그림 2] 참조). 즉 청계천 민속놀이의 현대적 재현은 2000년대의 시간 속에 사는 서울인들의 삶과 새롭게 복원되는 청계천 공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청계천 민속놀이는 청계천을 거점으로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의 삶과 관련을 맺으면서, 보수와 복개, 해체, 그리고 복원에 이르는 일련의 변모를 겪고 있음. 1900년대만 해도 청계천은 궁중문화와 양반문화, 중인문화, 천민문화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일상공간이었고, 민속놀이는 그러한 바탕 위에서 이루어짐. 그러나 현대의 청계천은 과거 신분사회·전통농경사회의 터전에서 다층사회·도시사회의 터전으로 변모하였음. 따라서 청계천 민속놀이는 이러한 복합적인 현대도시사회에 걸맞은 방향으로 재현되어야 함.



[그림 2] 청계천 민속놀이 재현의 패러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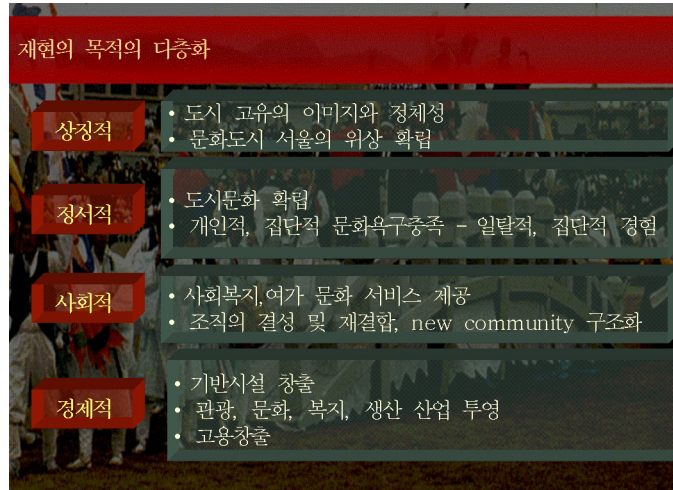
- 청계천 민속놀이 재현의 패러다임(2) : 재현의 의미와 목적의 다층화
 - 청계천 민속놀이의 재현은 과거 민속놀이의 단순재현이 아닌, '인간·공간·시간'의 맥락적 패러다임 속에서, 재현의 의미와 목적을 보다 다중적·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함. 이렇게 재현된 현대적인 청계천 민속놀이를 통해, 도시 민속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연계시키고, 궁극적으로 서울의 문화를 새롭게 재편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함.

- 재현의 의미의 다층화는 민속놀이의 현대적 재현이 담고 있는 개념적 내용을 보다 포괄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함. 즉 현대적인 민속놀이는 과거 민속놀이처럼 생업과 종교의 차원에서 의례성과 세시성 차원을 넘어, (그림 3)에서 보듯이 보다 **정서적·사회적·조직적·전통적 차원**에서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즉 놀이를 통해 일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일탈적 경험과 새로운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문화복지 서비스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며, 커뮤니티 조직의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과 현대화된 문화서비스 향유를 도모함.



[그림 3] 청계천 민속놀이 재현 의미의 다층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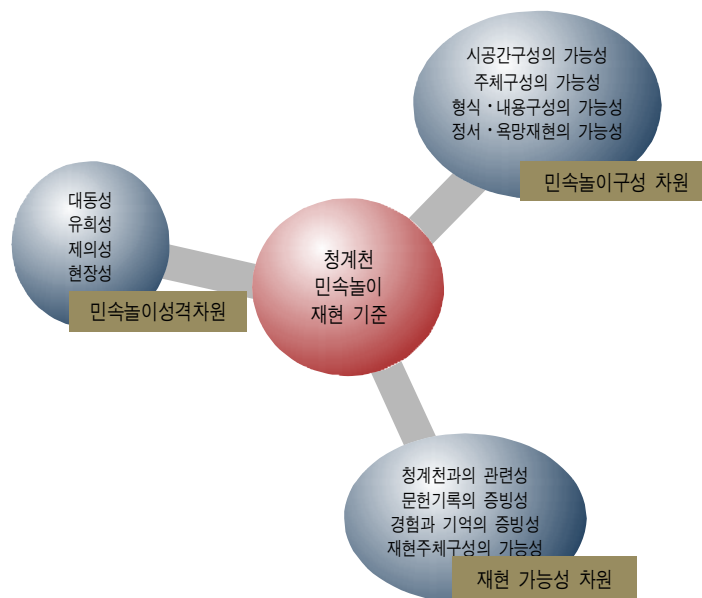
- 재현의 목적의 다층화는 민속놀이를 현대적으로 재현하는 목적을 보다 포괄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함. 즉 민속놀이의 현대적 재현은 (그림 4)에서 보듯이, **상징적·정서적·사회적·경제적 목적**을 지니고 있음. 즉 놀이를 통해 도시의 고유한 이미지와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문화도시로서 서울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여가서비스 제공으로 문화복지를 향상시키며, 조직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 창출의 계기를 부여하고, 문화관광산업과 연계시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자 함.



[그림 4] 청계천 민속놀이 재현 목적의 다층화

○ 청계천 민속놀이의 재현 기준

- 청계천 민속놀이는 ‘민속놀이의 성격’, ‘민속놀이의 구성’, ‘민속놀이의 재현가능성’ 등 세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재현되어야 함([그림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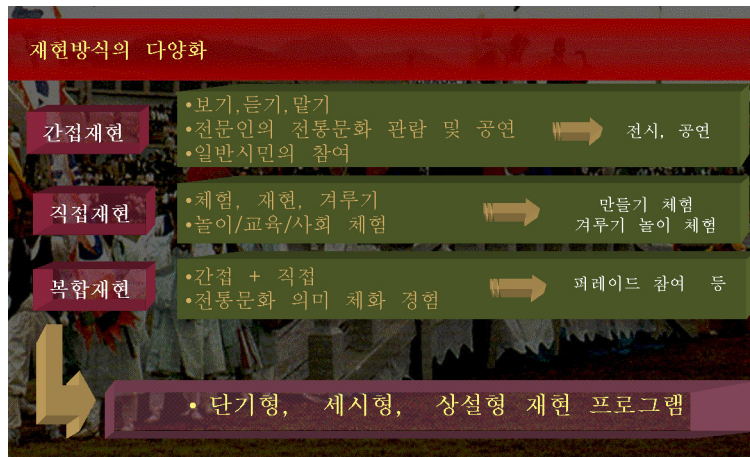


[그림 5] 청계천 민속놀이의 재현 기준

- 즉, 민속놀이가 지니는 본연의 속성, 즉 ‘현장성’, ‘대동성(大同性)’, ‘제의성(祭儀性)’, ‘유희성’을 충분히 현대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민속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놀이의 주체, 형식·내용, 정서·욕망, 시·공간 등의 구성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며, 청계천과의 관련성, 문헌기록의 증빙성, 면접조사를 통한 경험과 기억의 증빙성, 재현 주체 구성의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재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 청계천 민속놀이의 재현 전략(1) : 재현 방식의 다양화

- 청계천 민속놀이의 재현은 단순히 과거의 민속이나 놀이를 복원하여 보여주는 식의 박제화된 전통문화의 재현이 아니라, 민속놀이를 활용하여 놀이향유자 즉, 시민들에게 민속놀이에 얽혀있는 다양한 내용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함.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민속축제를 활용한 서울의 문화시스템의 다양화를 추구함.
- 먼저, 놀이 향유자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속놀이의 재현 방식을 (그림 6)에서 보듯이, ‘간접 재현’, ‘직접 재현’, ‘복합 재현’ 등으로 다중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그림 6] 청계천 민속놀이 재현방식의 다양화

- ‘간접 재현’은 연행 전문인이 공연을 하고 시민들은 관람을 하는 방식의 놀이재현을 말하며, ‘직접 재현’은 시민들이 직접 놀이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교육·사회·전통문화적 차원에서 민속놀이의 의미를 복합적으로 체화하는 방식의 놀이재현을 의미함. ‘복합재현’은 간접 재현과 직접 재현을 결합하여 전통문화로서 민속놀이의 의미를 보다 밀도있게 체험하도록 하는 놀이재현을 일컫음.

- 이러한 다중적인 놀이 재현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민속놀이의 재현프로그램이 보다 다각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음. 즉 특정기간 일시적인 대규모 축제형태로 재현되는 ‘단기형’ 프로그램, 세시풍속에 맞추어 절기별로 재현되는 ‘세시형(歲時型)’ 프로그램,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재현되는 ‘상설형’ 프로그램 등으로 민속놀이 재현 프로그램을 다각화시켜야 함. 이러한 세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은 청계천 민속놀이 재현의 기본계획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하되, 그 성격상 “단기형 → 세시형 → 상설형” 순으로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여,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장기·지속·안정적으로 현실화되도록 기획·개발되어야 함.
- 단기형 프로그램의 경우, 청계천 복원을 기념하고 새로운 서울 탄생을 기대하면서 민속놀이를 테마로 한 서울의 대표적 도시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재액초복,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던 세시특성을 현대적 감각으로 되살려 전통의 현대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프로그램 추진방향은 제의성·민속성·대동성·유희성·정기성·다양성을 내포하고 다양한 계층·연령·장르를 고려한 축제, 일회성 이벤트 행사가 아닌, 장기비전을 가지고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중시 시민주도 축제’, 민속놀이를 테마로 인간·시간·공간을 반영한 축제, 민속놀이를 중심으로 한 단일형·대도시형 축제를 지향함. 프로그램의 내용 및 구성은 세시력에 의거한 소망기원형으로서, ‘의례성(儀禮性, 섹터 1, 고태)’, ‘놀이성(섹터 2, 행렬)’, ‘대동성(섹터 3, 대동놀이)’ 등 3개의 섹터로 구성하여 전통 세시놀이의 특성을 반영함. 아울러 민속놀이인 ‘다리밟기’의 형식을 차용하여 과거 산거(山車, 산모양의 마차)의 재현과 현대 퍼레이드를 접목시킴. 단기형 프로그램 구성을 예시하면 <표 7>과 같음.

<표 7> 청계천 민속놀이 재현 “단기형 프로그램” 구성 예

구분	단기형 프로그램
목적	재액초복, 무사태평, 무병장수, 소망기원 등의 의미를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 경험
내용	다리밟기 형식을 차용하여 궁중연회, 산회 / 야회 놀이마당 및 청계천 핵심놀이(다리밟기 / 연등놀이 / 연날리기 / 석전) 개최
시기	청계천 복원완료 이후
장소	종로 및 보신각일대, 남산일대, 청계천공원 일대
형태	섹터1 : 고태(개막) / 섹터2(행렬) / 섹터 3(대동판) 공연 / 체험 / 재현 / 겨루기
구성	굿 / 퍼레이드 / 전시 / 경기 / 체험
주체	서울시 / 구청 / 민간문화단체 / 일반시민단체

- **세시형 프로그램**의 경우, 전통적인 세시놀이를 현대에 맞게 구성하여 향후 보다 풍부해진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민속문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세시행사를 정례적으로 축 제화하여 놀이의 전승력을 확보하고 민속의 의미를 재부여하며, 보는 민속에서 참여하는 민속, 느끼는 민속으로 확대재생산하여 교육·문화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프로그램 추진 방향은 현대에 전승되고 있는 놀이와 현대인에게 익숙한 세시를 테마화하고, 청계천에서 행해졌던 세시놀이들이 포함된 세시를 선별해 계절별 분포를 고 려해 개발함. 그런 의미에서 현재 프로그램화 가능한 대표 세시는 <표 8>에서 보듯 총 13개임. 세시별 프로그램을 통해 연령, 계층, 성별에 따른 다양한 문화서비스 프로그램을 연중 제공함.

<표 8> 계절별 대표 세시

세시	동지	제석	대보름	영등	삼짇	초파일	단오	유두	칠석 백중	추석	중구	한식
월	11	12	1	2	3	4	5	6	7	8	9	10
계절				봄			여름			가을		
				여름								
	겨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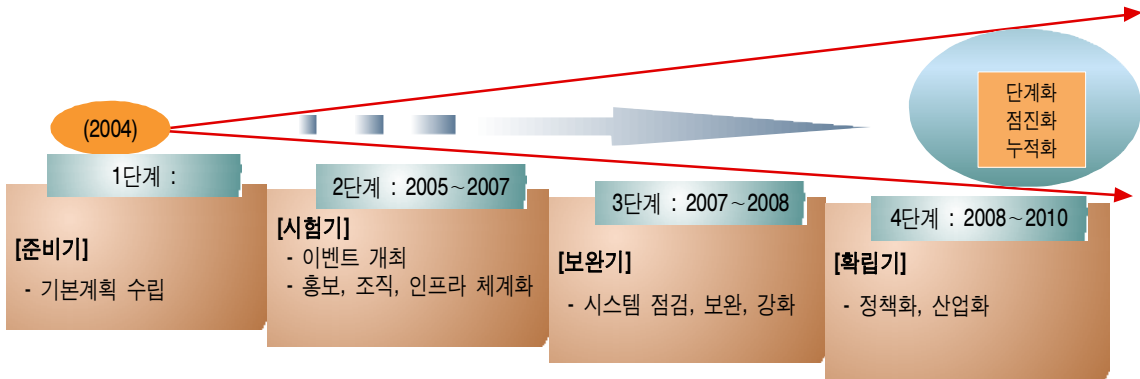
- **상설형 프로그램**의 경우, 일정 시기에만 개최되는 민속놀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상 설전통공연장과 같은 상설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청계천 민속놀이 자원을 상설공연화함으 로써, 자연·문화·역사가 어우러진 여가, 관광, 휴식,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내외국인 을 타깃으로 한 전통문화 마케팅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프 로그램 추진방향은 공연자와 관람자가 모두 주체적 향유자로서 전통문화 전승에 중심이 될 수 있는 공연·교육·전시·커뮤니티 참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계층·성별·나이 등 향유주체의 특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일반시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함. 프로그램 내용 및 구성은 청계천 주변 및 서울의 민속을 중심으로 구 성하되 점차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가도록 함. 상설형 프로그램 내용을 예시하면 <표 9>와 같음.

<표 9> 청계천 민속놀이 재현 “상설형 프로그램” 예시

세 부 사 항				
장소	청계천변 일정공간 상설공연장	·실내 : 교육공간(체험관, 전수관 등) / 전시공간(박물관, 전시관 등) / 커뮤니티공간 / 전문예술인공간 / 공연무대(대/소) / 도서관 ·실외 : 마당공간/무대공간/광장		
시간	주2회(토, 일) 공휴일	14:00~17:00(동절기/하절기 구분)		
내용	공연	전문인	소리	·선소리산타령 - 선소리타령보존회
			탈춤	·양주별산대 - 양주별산대보존회 ·송파산대놀이 - 송파산대놀이보존회
			인형극	·그림자인형극 - 서울인형극회 ·꼭두각시놀음 - 남사당보존회
			풍물	·남사당풍물놀이 - 남사당보존회
			줄타기	·줄타기 - 남사당보존회
	비전문인	각종 문화예술통계	·구청 산하 시민모임 ·일반 커뮤니티 모임 ·교육기관 모임 - 각급 학교, 학원 등	
		교육	전문 및 비전문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도서관, 체험관 운영	
전시	전문 및 비전문인 대상 전시 및 박물관 운영			
커뮤니티	전문 및 비전문인들의 커뮤니케이션 마당 운영			

○ 청계천 민속놀이의 재현 전략(2) : 중·장기적 재현 계획 수립 추진

- 청계천 민속놀이의 재현 프로그램 개발은 청계천 복원 공사를 기념하는 일회성 프로그램의 개발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재현의 의미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10년 앞을 내다본 장기적인 문화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해 준비기(2004~2005), 시험기(2005~2007), 보완기(2007~2008), 확립기(2008~2010) 등 4단계의 장기 전략 속에서 청계천 민속놀이 재현 프로그램을 개발함(그림 7) 참조.
 - 1단계 준비기(기본계획 수립) : 축제 추진주체 구성, 축제 기본 프로그램 기획, 청계천 민속놀이 DB구축 및 상품개발, 물리적 인프라 기획, 홍보기반 마련
 - 2단계 시험기(이벤트 개최/홍보·조직·인프라 체계화) : 단기형 축제 개최, 주체네트워크의 체계화, 물리적 인프라 활용, 복합문화서비스 체계 구상
 - 3단계 보완기(시스템 점검·보완·강화) :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일상화, 주체네트워크 연대화, 물리적 인프라 구축, 복합문화서비스 체계 가동
 - 4단계 확립기(정책화·산업화) :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확립, 축제조직 전문화·상설화, 물리적 인프라 확립, 복합문화서비스 체계 확립



[그림 7] 청계천 민속놀이 재현의 장기적 스펙트럼

청계천 민속놀이 이용 문화인프라 구축 및 도시마케팅 활용

○ 물리적 문화인프라 시설 구축

- 청계천 민속놀이는 시민들의 삶 속에서 청계천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그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함께 호흡하는 일상적 축제문화로 자리매김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물리적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함. 대표적인 것으로 상설전통공연장 건립, 민속놀이 박물관 조성, 청계천 환경장식물 활용 등을 들 수 있음.

○ 문화관광상품 개발

- 청계천 민속놀이를 활용한 서울문화관광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청계천 민속축제 개최 시 판매함으로써, 청계천 민속놀이를 홍보함과 동시에 청계천 장소마케팅 및 서울 도시마케팅 상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공간연계 프로그램 개발

- 청계천 민속놀이는 서울 도심부에서 개최되는 기존의 다양한 전통축제와 연계하여, 시기적으로 중복되지 않으면서 내용적으로 서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궁, 운현궁, 인사동, 정동, 삼청각, 남산골한옥마을, 서울놀이마당, 숙정문, 국악로(남이장군 사당굿 전수관 등 국악 관련 공간 다수) 등 도심에 조성되어 있는 문화시설들 및 전통거리와 청계천 민속놀이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공유하거나 각 시설들을 연계한 민속탐방 투어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타깃별 마케팅 전략

- 청계천 민속놀이는 타깃에 따라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배치시킬 필요가 있음. 청계천 민속놀이의 타깃은 크게 일반시민, 지역상인, 기업, 외국인 관광객 및 방문객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일반시민은 다시 세대에 따라 청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 등으로 세분할 수 있음. 이들 각 타깃에 따라 청계천 민속놀이의 이미지컨셉을 달리하고 그러한 이미지에 걸 맞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함.

○ 서울 민속축제 프로그램 신규 개발

- 청계천 민속놀이의 재현은 서울의 역사성을 현대적으로 복원하는 기획임으로, 청계천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서울 도심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고 있거나, 복개시대 이후 근현대 청계천의 역사를 반영하는 다양한 여타 민속축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신규개발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서울 도심의 궁중문화를 재현하는 '동북아 산대 페스티벌'과 '궁중문화 페스티벌', 청계천 근현대사의 유명인물들을 테마로 한 '근현대 청계천 영웅전' 등을 들 수 있음.

이무용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
02-2149-1273
cult@sdi.re.kr